

국민연금 개혁법안, 국회 본의회 통과

보험료를 13% 소득대체를 43% · 군 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로 확대… 내년부터 시행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수준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33년까지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은 3%였으며, 이후 6%, 9%로 조정됐다. 또한,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지급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현재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고정된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료를 인상과 정부의 기금 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는 노력 덕분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의무를 명문화했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

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여 신뢰를 더욱 강화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되며,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제도로 확대된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

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군 복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 복무로 인한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포함되어 지원이 확대된다.

법안 시행일은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업·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총동창회,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지원

신입생 최대 800만원 · 의학학 계열 최대 12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전북자립지원재단기관 1층 온라운지에서 전북대학교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입생은 재학 중 8학기 동안 최대 800만 원, 의학학 계열 학생은 12학기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병선 전북대총동

창회장이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 김경환 전북자립지원재단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최병선 전북대총동창회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총동창회 정관 개정을 통해 지원을 체계화한 만큼 앞으로도 동문들의 뜻을 모아 장학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2025년 세계 물의 날 맞아 물산업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0일 도청 중회의실에 전북 물포럼 위원, 물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이 물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북 용수공급체계 개선 △물산업 방향성 제시 △2025년 전북물포럼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북 지역의 물자급을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새만금 스마트워터그리드 도입, 스마트팜 물순환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전북의 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물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들은 지역 내 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만호 기자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더나... 도, 정책자금 1482억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해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1,482억원을 상반기 중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축산농가가 신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사료를 외산 구매한 금액을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에 따라 한우 유·젖소·양돈·가금농가는 최대 6

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 구제역·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육두수·기존 대출 잔액·지원 한도 등을 검토해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우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3억 원을 투입해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이용 농가 대상으로 축종·사육 규모별로 융자 실행액의 0.4%~1.8%까지 차등 적용해 대출금 이자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영농철 농기계 사고 급증... 전북소방, 긴급 대응체계 강화

영농철 긴급구조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영농철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경운기, 예초기, 트랙터 등의 전복 △기계에 끼임 △급경사지 및 배수로 추락 등이 있으며, 작업 중 부주의, 기계 조작ミス,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는 도내 농기계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농기계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마을회관과 주요 농기계 이동구간에 플래카드와 포스터를 부착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마을 방송과 전광판을 활용해 사고 예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안전교육과 훈련도 확대한다. 지역 의용소방대와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기술교육센터와

협력해 실질적인 사고 대비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유압전개기와 절단기 등 농기계 구조장비의 기능 점검과 숙달 훈련을 강화해 신속한 구조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긴급구조 출동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농기계 사고 발생 시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 3대 이상의 소방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치고, 레카와 대형 크레인 업체와 협력해 대형 사고 발생 시에도 원활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혁신주인공 선정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선정 주역, 김상현 주무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기여, 전성민 주무관

전북특별자치도는 노사가 함께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혁신주인공’으로 평가대응TF 김상현 주무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전성민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평가대응TF와 김상현 주무관은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올

림픽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현장 평가 대응, 대의원총회 발표 자료 작성, 언론 홍보 등을 총괄하며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전략적 기획을 바탕으로 평가 대응 논리를 구성하고, 국내외 스포츠·정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혁신적 성과를 창출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전성민 주무관은 지난해 말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실효율 1.31%까지 끌어올리며, 최초로 목표치(1%)를 초



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위해 매월 부서별 실적을 점검하고, 저조한 부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구매 독려 활동을 펼쳤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각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품목 2개를 선정하고, CU도청점 입점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혁신 주인공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상장이 수여되며,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에서 제작한 캐리커처가 전달된다. 또한, 소속 부서에는 간식이 제공돼 동료들과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만호 기자

- 공 고 -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증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증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중식(시래마을)

- 안 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중증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증 회장 박철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